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교황 “전 세계 이주민 향한 적대심 거둬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이민자들을 향한 적대를 거둬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전날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 강론에서 이민자들이 처한 현실을 과거 사도 바울이 겪은 박해와 비교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황은 “그들은 폭력과 전쟁, 가난을 벗어나고자 목숨 건 항해에 나서지만 많은 경우 입항을 허락 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현지인들로부터 심각한 적대와 맞닥뜨린다. 등 뒤로 냉대의 비수가 날아들고 벗어나려 한 가난과 위험 속에 다시 빠져들기도 한다.”고 개탄했다.

교황은 또 일부 정치인들이 그들을 단순한 숫자로 인식하거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듯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적대와 무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귀하고 그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끊임없이 이민자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그리스에 체류하던 이주민 수백명을 바티칸으로 데려와 정착시키기도 했다.

장애인 장학 복지기금 수여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지난 20일 감사한인교회(담임목사 구봉주,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길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알 장학금을 정성껏 마련해 매년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한 행위이다.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도 큰 믿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80명의 장학생들에게 모두 138,000달러의 장학기금이 전달되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마태 6, 24-34)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는 돈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업무량이나 종류, 성별이나 기능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액수의 보수를 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결과이며, 이 재물은 또한 온 인류의 재산이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합니다. 수수의 사람이 세상의 재물을 다 소유하는 것은 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재물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의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며 재물에게 온갖 희망과 영생까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종이 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건에 다름이 없습니다. 종이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 종을 부리고 파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종이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나! 재물이나! 할 적에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

물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며, 인간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며, 재물이 최상의 선(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세상의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얻기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을 구할 것인가? 아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재물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경고

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수 일을 하심으로써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질의 좋은 용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다. 양로원과 고아원을 짓고, 병든 자를 위한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질의 향락이나 낭비는 경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마음과 손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망설일 것도, 무서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우리의 근심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므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값진 노력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노동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힘써 노력하여 재물을 얻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덩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용호 신부-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IGNPLUS

TROPHY & ENGRAVING

SAME DAY SERVICE AVAILABLE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